

예술에 관한 짧은 기록과 실험 단편집

1편 그녀가 죽기까지의 과정 (부제, 언어가 예술이 될 수 없음에 대하여)

감독/촬영/프로듀서 류치우

제작 GREY ADAM

1. 단편집 '예술에 관한 짧은 기록, 혹은 실험'

본 단편집은, 이 세상의 예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을 보여주는지,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성격을 지녔으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교통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물건, 자연 등을 통해 유추되는 예술에 관한 다양한 가정, 명제를 세우고, 그것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또한, 단순히 예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모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영화를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는 한 그 가정/명제/기록이(가) 틀려도 괜찮다는 점에서 이는 하나의 '실험'과 비슷합니다.

,

현재 본 주제에 해당하는 5개의 단편을 구성 중이며, 이들 작품은 단일, 혹은 소수의 묶음 형식으로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2. 그녀가 죽기까지의 과정

(부제, 언어가 예술이 될 수 없음에 대하여)

(1) 기획의도

'분명 여기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미묘한, 설명 안 되는 생각과 마음들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대처방식들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극중 시와 음악의 대조를 통해 언어는 예술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해보려 합니다.

(2) 등장인물

수이(28) : 젊은 과부, 구철의 옛 연인

구철(30) : 시인을 가장한 평범한 남자

경수(5) : 구철의 애견

(3) 시놉시스

영화 '영원과 하루'에 감동하여 시어를 찾으러 훌쩍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구철. 그는 그곳에서 옛 연인 수이를 만난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 그녀의 모습은, 구철이 기억하는 그녀의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고 애잔했다.

구철은 그녀 안에서 완전한 시를 쓸 수 있으라 확신하지만, 결국 그가 마주한 것은 그녀가 강원도에서 자살을 기도하려 한다는 사실. 어찌하여 수이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한 구철은 절정의 순간에 시어를 발견하게 되고, 절정

후의 공허함은 시어를 발견한 기쁨으로 채워져, 그는 그녀를 버리고 강원도를 뒤로 한다.

3. 일정

(1) 프리프로덕션

2018.08.10 - 2018.08.21 주연 모집

2018.08.10 - 2018.08.21 음향, 조감독 스태프 모집

2018.08.10 - 2018.08.29 촬영 기재 결정

2018.08.14 예산안 작성

2018.08.15 1차 각본 완성

2018.08.15 - 2018.08.21 조연 모집

2018.08.21 배우 서류심사 완료, 통보

2018.08.21 메인 스태프 결정

2018.08.22 1차 로케이션 헌팅

2018.08.22 - 2018.08.30 로케이션 교섭

2018.08.24 2차 각본 완성, 배부

2018.08.25 - 2018.08.29 주, 조연 오디션, 미팅 진행

2018.08.30 주, 조연 캐스팅 결정

2018.08.30 촬영 기재 신청

2018.08.30 최종 각본 완성, 배부

2018.08.30 - 2018.09.01 2차 로케이션 헌팅

2018.09.01 - 2018.09.07 로케이션 교섭

2018.09.02 - 2018.09.09 리딩

2018.09.07 로케이션 결정

2018.09.07 스태프 미팅

2018.09.08 로케이션 답사

2018.09.09 - 2018.09.10 스태프 제작 회의

2018.09.11 기재 반입, 현장 이동

(2) 프로덕션

2018.09.12 - 2018.09.15 4일차

예비일 : 2018.09.17, 2018.09.18

장소 : 강원도

(3) 포스트 프로덕션

2018.09.20 - 2018.10.04 편집

2018.10.05 - 2018.10.11 정음

2018.10.05 - 2018.10.11 색 보정

2018.10.12 - 2018.10.15 MA

2018.10.20 완성